

중동의 어린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 62:10



함께 기도 해주세요

1. 전 세계 CEF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2. 전도를 위해 창조적인 지혜를 주소서.
3. P국에 머물고 있는 마르타와 주마가 케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소서.
4. 국제 총재님이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5. 국제 CEF에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소서.
6. 중동지역 사역에 헌신하게 된 둘째 딸 주은이를 축복하사 사용해 주소서.
7. 저희들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소서.

“열린 문!”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교지 일상을 너무나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중동의 어떤 국가도 방문할 수 없고 사역자들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아예 통행금지가 내려져서 사역이 멈춰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이 난국에도 주님의 구원의 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내고 또 도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린이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주께서 Zoom 앱을 통한 “온라인 새소식반” 아이디어를 주셔서 국제본부에 제안하여 Zoom 화상통화를 이용한 온라인 새소식반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 전세계 모든 지역에 보급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Zoom 새소식반이 곳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소식반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도자들에게 보급하고, 3 종류의 코로나 전도지를 만들고 또 영상으로 제작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길이 막혔지만 주께서 저희들이 Zoom 화상통화 앱을 통하여 사역자들을 만나고 전략회의와 기도회를 하면서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여전히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대부분의 사역은 인터넷과 위성방송을 통해서 복음전도와 훈련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로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사역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후 2020년 4월 4일

복음의 일꾼 조예레미야, 김사라 드림

Good News Across the Web

Online Manual



조예레미야&김사라
1015hwan@hanmail.net
중동지역 어린이 선교에
동참해 주세요

국민:831801-04-039243
(사)한국어린이전도협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동지역에 몰고 온 하나님의 일들!

갑작스러운 국가 봉쇄

P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자 통행이 금지되어 진행중이던 CMI를 급히 중단하고 학생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차단되어 케냐 강사들이 출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들이 CEF 국가이사님의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현지 CMI 강사들이 장차 CMI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P국 공항과 케냐 국제공항이 차단되어 있는 중이라 주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주께서 이번에 훈련 받은 12명의 사역자들을 위한 동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 P국 대표 파이크-



중단 할 수 없는 복음 전도

두르지라는 도시는 대부분이 M교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15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린이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위해서 왔어요, 저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한번도 빠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두루지시에 새소식반 전도를 위해 가려고 버스를 기다릴 때, 터미널 옆 골목에서 놓고 있는 두 명의 어린이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총 12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탕자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사랑받는다를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버스 터미널 옆 어느 가정에서 이들을 위해 새소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S국 Z 사역자-

봉쇄를 뚫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어제 사무실에서 작년에 사용했던 Meet the King 전도지 350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후에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세 팀으로 나누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저희 팀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난 후 제가 경찰에 양해를 구했더니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풀어 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찾고 찾다가 마침내 몇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도책자를 꼭 읽겠다는 약속을 받고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책자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세요." -방국 데이비드 임



하나님의 열심

태어난 지 18개월 된 한나는 폐에 손상을 입고 기침과 고열로 병원에 갔으나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않았습니다. 10일 차에 한나의 숨이 끊어 졌다고 하며 의료진은 한나를 엄마의 품에 넘겼습니다. 큰 슬픔속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는 한나의 몸에 여전히 온기가 있는 것을 느끼고 급히 작은 병원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 3명의 여의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지하교회 비밀 성도였습니다. 이분이 한나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담대하게 간증을 나누면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생명을 돌려주시기를 원하시면 한나가 살아날 것 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때 M 신자였던 두 의사는 만약에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는 한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25분 이후에 한나가 회복되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그들은 그 의사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그 가족에게 이 기적적인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한나의 부모, 두 명의 의사 가정, 택시 기사 가정 그리고 병원 경비 가정을 만지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지금 CEF 자원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A국 대표 타키 -